# "상황되면 北에 행동 보여줄 것"

## 정부 당국자 "금강산 사건건사 거부땐 개성관광 중단될 수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낼 복안에 언급, "때가 되고 상황이 되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태도와 상황, 여론을 판단해서 대응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은 호미로 일을 막을 수 있는데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기 전에 북한이 우리의 진정성과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 진상조사에 응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느 당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우리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중앙정부 차원이든지 어떤 형식이 될지 모르지만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문제에 언급, "남북문제니까 남북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 "우리는 국제공조를 할 생각이 없지만 국제여론이 악화되면 우리가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관광 문제에 대해 이 당국자는 "개성관광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시킨다는 생각은 없다"면서도 "북한이 우리 요구에 호응해 온다면 계속 가는 것"이라고 말해 북측이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어떤 일이 있어도 개성관광은 계속돼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성관광에서도 또 사태가 발생하면 남북관계는 정말 큰일나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다"면서 "정부는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정부로서는 북한이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 진상조사단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하고 그 기회에 여러 이야기도 하고 오해가 있었다면 불식시키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발전시켜 나가고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화 재개에 나설 의사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 美대선 D-100일 오바마 우세속 매케인 맹추격

## 지지도 5~6%차 박빙 승부 가능성

초강대국 미국의 향방을 좌우할 11월 미국 대선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 공화 양당 후보로 확정된 버락 오바마와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대결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초의 흑인 미국 대통령을 노리는 오바마와 사상 최고령 미 대통령에 도전하는 매케인의 대결은 일단 오바마의 우세 속에 매케인이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는 형국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국 내 각종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는 6월 초 후보 확정 이후 매케인을 5~7% 포인트 차이로 줄곧 앞서다가 7월초 격차가 좁혀졌으나 중순 이후 다시 선두로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갤럽과 CBS-뉴욕타임스, ABC-워싱턴포스트, 뉴스위크, 퀴니피액대 등 5개 조사를 종합해 지난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는 47%의 지지율로 매케인(41%)을 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갤럽이 22일 발표한 조사에서도 오바마 47%, 매케인 41%로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라스무센 리포트가 22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 43%, 매케인 42%로 거의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가 일단 리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아직 승패를 점치기는 이르며, 양자간 대결은 박빙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바마와 매케인은 선거조직을 다음달까지 전면 재정비하고 자금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러닝 메이트로 나설 부통령 후보를 선정, 각각 8월말과 9월초 후보 지명 전당대회를 계기로 본선 고지를 향한 총력 선거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은 첫 흑인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서는 혁명적 변화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매케인이 승리한다면 기본적으로 부시 행정부와 토대가 비슷한 국정 운영이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46세인 오바마와 71세인 매케인은 각각 흑인과 백인으로 사상 첫 흑백 대결에 나서는 것 만큼 정치노선과 선거 공약에서 뚜렷이 대비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강산 피살' 중간조사 결과 오늘 발표

## 정부 합동조사반, CCTV 분석 결과 등 밝혀

정부가 25일 금강산 관광객 고(故) 박왕자씨 총격 피살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황부기 합동조사단장은 그간 국내에서 금강산 관광객들로부터 청취한 사건 발생 당시 상황과 박씨 숙소인 금강산 비치호텔 등에서 확보한 CCTV 분석 결과 등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 발의 총성을 들었다던 관광객들의 진술과 달리 당시 초병이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발사했다는 전언을 포함, 북측이 설명한 박씨 피격 경위 중 석연치 않은 대목들에 대한 1차적 판단 등도 일부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또 이날 민간단체의 방북문제와 관련, "북한 아리랑 공연이 열리는 8~9월 여러 국내 민간단체들이 직항로를 이용하는 60~150명 규모의 대규모 방북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관계부처 실무자가 전화로 해당단체들에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교환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허가 불허 여부는 해당 단체가 신청할 때 구체적 행정행위로 나타날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허가한다 불허한다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해당 민간 단체들로부터 방북 신청이 들어온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전교조, 민주노총 등의 관계자들이 24일 개성에서 사회문화 교류와 관련한 대북 접촉을 가질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소규모 대북 지원을 위한 기술협의 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민주평통 관계자들의 8월 방북 계획을 '직권철회'시켰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면서 "민주평통은 8월 중 대규모 방북 계획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아세안을 무대로 한 장관급 연례 안보포럼인 제1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24일 오전 회의장인 샹그릴라호텔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장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인 평균수명 79.1세…OECD 평균 넘어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명을 넘어섰다.

24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공개한 '2008 OECD 건강데이터'에 따르면 2006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9.1세를 기록해 OECD 국가 평균수명 78.9세를 0.2세 앞질렀다.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일본(82.4세)과의 격차도 3.5세로 줄였다.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은 2001년 76.4세, 2002년 77세, 2003년 77.4세, 2004년 78세, 2005년 78.5세 등으로 연평균 0.5세씩 증가해왔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국민의 올해 평균 수명은 80세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사망 요인 1위인 암과 2위인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허혈성심질환과 자살에 따른 사망률은 증가 추세이거나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측은 한국인의 평균수명 증가가 ▲소득 향상에 따른 생활 수준 개선과 생활 양식 변화 ▲건강 증진을 위한 투자 증가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의료 자원과 관련, 국내 총 병상수는 인구 1천명당 8.5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3병상이 많은 반면 활동 의사 숫자는 1천명당 1.7명으로 OECD 평균보다 3.1명 적었고 활동 간호사 숫자도 1천명당 4명으로 OECD 평균 9.7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민 1인당 외래진찰 횟수는 2005년 기준으로 연간 11.8회를 기록, OECD 회원국 평균 6.8회의 배에 가까웠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 등으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 덕분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남·북 외교 '금강산 사건' 대치

## ARF 외교장관회의 개막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을 무대로 한 장관급 연례 안보포럼인 제1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싱가포르에서 개막했다.

이날 안보포럼에서는 남북한이 '금강산 사건'을 놓고 접점없는 발언을 하고 북한이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등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대화상대 10개국, 북한과 몽골 등 27개국 외교장관들은 2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제15차 ARF를 열어 빈부격차, 식량·에너지 위기, 미얀마 사이클론 피해복구 문제 등 역내 현안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비핵화 2단계 마무리와 핵 검증 단계에 와 있는 북핵 현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한국측 주도로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도 현안으로 다뤄졌다.

유명환 외교장관은 회의에서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우리측 조사단의 수용을 북한측에 촉구했으며 이번 사건이 남북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용준 외교부 차관보가 전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금강산 사건은 비극적 사건이며 대화를 통해 남북한 간에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남북대화의 발전이 6자회담 진전에도 도움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한국 정부가 6·15선언 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남북한간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8월11일까지 안할 수도"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신고 내용의 검증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선언을 시한인 8월11일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북한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24일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절차는 의회통보 이후 45일간 해당국의 조치를 평가한 뒤 만족할 수준이 될 경우에 한해 국무장관이 공식 해제선언을 해야 완결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측에 이런 해제절차에 대해 집중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3일 싱가포르 비공식 6자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박의춘 북한 외무상과 만나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체제 확립 등 검증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직접 촉구했다. /연합뉴스